

# 주간에 News InChrist



주. 안. 에. 교. 회. 뉴. 스. 레. 터.



01  
Jan. 2014  
Vol.2 No.1

- 우리 가족 새해기도
- 새해맞이 특별집회
- 교육부 수련회
- 칼럼 / 화보

주안예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nnews123@gmail.com | web: in-christcc.org

## “저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까?”

### ■ 이 달에 만난 사람/ 벨리채플 찬양팀-고원웅, 지연 집사

하늘을 향해 찬양하는 사람, 벨리채플 주일예배와 금요영성 집회 시 혼신을 다해 드림을 연주하는 그의 표정을 보면 ‘100% 찬양, 100% 예배자’의 모습을 읽을 수 있다. 고원웅 집사, 그리고 그 곁에서 베이스기타를 연주하는 아내 고지연 집사이다. 결코 쉽지 않은 삶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 조용대 기자 |



#### -두 분의 첫 만남은?

(고지연 집사) 1994년 장래 시아버님이 될 목사님이 개척해 시무하시던 교회에서 청년부 활동을 하고 있을 때, 교회 창립 30년 기념행사가 있었어요. 그 때 미국에서 고원웅씨가 한국에 나오셨는데 첫 눈에 너무 착하고 좋았어요. 시력이 안 좋은 것은 알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리라 믿었습니다.

는 것 보다 이 곳이 나올 것 같아 1985년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도 큰 활자 책을 만들어 주고, 교과서를 녹음해 주기도 하고, 선생님이 직접 저에게 학습지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와 대학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 -어릴 때부터 시력이 안 좋으셨는지?

태어난 후 의사가 시력이 이상이 있어, 10년 정도밖에 보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차례 수술도 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교 입학은 앞두고 새 교과서를 받아 왔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책을 눈 가까이 갖다 대어도 안 보였어요. 어머니와 많이 울었습니다.

#### -지금 하시는 일은?

사실 결혼하고 딸 줄리도 태어나고, 장애가 있지만 가장으로서 처자식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데... 무엇을 해야 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을 주셨어요. ‘The Language Line Service’라는 회사인데 말하자면 전화로 통역하는 업무예요. 주로 보험사나 은행, 병원의 고객들 중 영어를 못하는 분들이 직원과 대화할 때 양쪽 이야기를 영어와 한국어로 통역해 주는 거지요. 집에서 일할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 -미국에 오게 된 것도 시각 장애와 연관이 있었나요?

작은 아버지가 미국에 살고 계셨고, 저도 공부하고 사회생활 하려면 아무래도 한국에 있

-음악공부는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 악기를 다 연주 하시는데... 찬양사역을 하게 된 동기는?

음악공부를 따로 한 적은 없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 형한테 통기타를 좀 배운 게 전부입니다. 음악보다 먼저 말씀 드릴게 있군요. 더 이상 앞을 못 보게 되면서 실의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두려움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실명이 나의 잘못에 대한 징계라는 생각까지도 했죠. 그러던 중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소경 된 자를 고쳐 주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소경 된 것이 ‘본인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라는 말씀이 제게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실명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입니까?’라고 기도하게 되었고, 그 때부터 제가 음악을 할 수 있도록 악기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한 분씩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찾아 나선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찬양할 기회도 그렇게 주어졌고요. 아내의 베이스 기타는 제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15면에 계속>

### 연합성가대 찬양



진정한 복은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

# BLESSING



# 마음과 정성 다해... 첫번 크리스마스의 감동이

## ■ 성탄축하예배

“성탄예배는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한분 한분이 준비하고 마음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안에 교회 첫 크리스마스 축하예배는 최혁 담임목사님이 정의한 것처럼, AD 0(서기1년)으로 돌아가 그 때의 모습과 감동과 교훈을 얻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므로 예배가 시작되기 전 준비하는 예배자들은 이미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교역자들로 구성된 찬양팀, 목사님들이 드림과 키보드를 맡고 전도사님들과 간사님들이 각종 악기와 보컬로 예배를 인도했다. 김경일 장로(세리토스 채플) 박기용 원로장로(밸리 채플)의 기도 후 장로 8분으로 구성된 중창 ‘Hallelujah to the Saints’이 있었다.

이어 마태복음 2장을 본문으로 최혁 목사의 성탄절 메시지 ‘동방박사’가 선포됐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과 화원이 다른 동방박사들의 여정을 통해 ‘지식의 신앙인’이 아닌 ‘삶

의 신앙인’의 모습을 조명, 오늘 우리들이 믿음생활에 대한 회개와 결단을 촉구하셨다. 연합성가대의 ‘왕의 왕, 주의 주’의 뜨거운 찬양이 이어졌다.

다음으로 EM 중고등부 풍자극 ‘응답하라 AD 0’은 10대들의 재치와 순발력을 동원한 2000년 전 베들레헴 사회로 돌아가 마리아 요셉, 천사의 모습을 그렸다. 코믹한 연기였지만 마리아와 요셉의 두려움과 당황, 고뇌가 읽혀졌다. 6명으로 구성된 한어청년부 코람데오의 바디워십 ‘조이플 조이플’은 빠르고 역동적인 몸짓 자체가 예배임을 보여주었다. 예수님의 생애를 표현한 샌드 드로잉과 예수님의 얼굴 모습을 함께 그리는 ‘The One’은 성도님들의 금금증과 상상력을 자극했다.

마지막으로 온 회중과 연합성가대가 한목소리로 ‘앞드려 절하세’를 찬양, 아기 예수님에게 대한 감사와 경배를 올려 드렸다.



## ■ 한어청년부(코람데오) 성탄벉릿

지난 12월 25일(수), 한어청년부 코람데오는 밸리채플 101호실에서 성탄벉릿 행사를 가졌다. 예수님 탄생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세리토스 채플과 밸리 채플의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청년들은 이날을 위해 몇 주전부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모임장소를 함께 꾸미며 성탄의 기쁨과 설레임을 가슴에 품었다.

이 날 주된 행사는 선물교환의 시간이었는데, 각자 10불 정도의 선물을 미리 준비해 와서 게임 형식으로 선물을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선물교환에 이어 한 해동안 감사했던 제목들을 한 사람씩 나와 발표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에 대해 다시금 생각했다. 개인의 삶에서부터 교회와 공동체를 만난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주안에교회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





# ICCC 주안에 가족



### 이경하 권사

지난 한해 주안에교회를 만났고 최 목사님 외 참으로 좋은 많은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2014년도는 이들과 함께 진실된 "Together in Christ" 가 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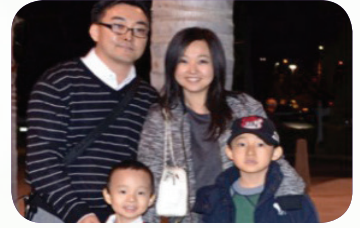
### 남성우 집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매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으로 우리 가정의 삶이 풍성해지게 하소서.



### 유중희 권사

새해부터는 저와 온가족이 하나님을 더 알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맞보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며 하나님께만 영광돌리는 삶 살게하옵소서.



### 박재홍, 에스더 집사

2014년도에는 남편과 아이들(이든 & 콜린), 우리 가족 모두에게 건강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김헬렌 권사

하나님이 제게 주신 직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온 맘과 정성 다해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연로하신 어머니에게 평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 딸에게 만남의 복을, 형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 이혜령 권사

새해에는 하나님의 큰뜻이 있어 세워진 주안에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는 교회로 이만 사회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힘차게 발하길 기도합니다.



### 크리스, 조이 메기 집사

아버지의 사랑으로 곱게 마음이 물들어 지는것이 우리 가정의 꿈이며 기도제목입니다. 아버지와 더 깊이 사랑에 빠지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것.. 아버지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 김경배, 용훈 집사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분별케 하소서. 주님의 뜻에 가감없이 순종하게 하소서. 현재에 최선을 다하며 기쁨으로 충만케 하소서. 지혜와 사랑의 능력을 부여주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하소서.



### 황중훈, 정소연 집사

우리 가족이 주 안에서 말씀에 의지함으로 화평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 장모님 간관계 하 시옵소서. 동생 황성남 형제가 성실히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히케빈 집사

가족의 건강과 캄보디아로 이어지는 사업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좀 더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 정명안 집사

제가 근무하고 있는 Kaiser 병원에 한방 Clinic 이 설치되어 그곳에서 근무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족이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 박은래 장로

금년 한 해에도 주님과 연합의 축복을 누리며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헌신하며 통전성을 유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김영철 집사

올해 소망은 성령충만을 매일 매일 체험하면서 온 가족이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 박창신 집사

받은 축복 감사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해가 되기를, 저희 가족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국에 계신 언니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 이신디 집사

딸 Samantha가 신장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올해 꼭 치유 받기를 기도합니다.

# 2014년 기도제목



### 이유중 집사

2014년도에는 저희 가정이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그리고 모든 삶 속에서... 감사로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 정순복 집사

주님이 사랑하시는 둘째 딸 다름이가 올 한 해에는 주님께 가까이 하는 삶, 주님께 순종하는 삶,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동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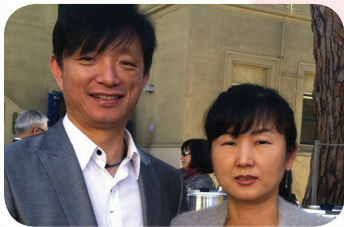
### 정동훈,경주 집사

세상과의 싸움에서 전승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 해가 되길... 가족들이 입만 열면 시편보다 더 아름다운 간증거리가 쏟아지는 한 해가 되기를... 새 직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 이석원, 경희 집사

주안예교회를 섬기는 가정 마다 치유, 회복,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오래 된 옛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말씀에 다가가는 변화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김중성, 연희 집사

자녀들이 예배에 기쁨 부으심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악한 세대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 신희철 장로

새해에는 더 사랑하고 배려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낮아짐으로 주님을 가리지 않게 하소서... 건강하여 소명을 감당하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며 주님을 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종으로 인도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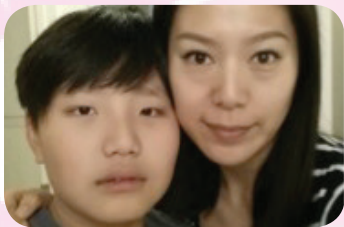
### 장영생, 줄리 집사

우리는 그 동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기다림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계속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더욱 크게 우리가족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립니다.



### 박한신, 강진명 집사

하나님! 2014년에는 우리 가정 속에, 일터 속에, 그리고 아이들의 배움터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가족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이 있는 아침 햇살 같은 사람이 되게 도와 주소서!



### 김미희 집사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주신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삶의 현상이 진짜 예배장소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내 아이와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 박선우, 성원 집사

저희 가정과 임마누엘 성가대안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마다 말씀과 찬양으로 체험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 조경일, 이지혜 집사

2014년도 우리가 불잡을 복의 말씀과 더불어 깨달음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다바르'의 믿음! 올 한해는 강복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권을 맘껏 사용하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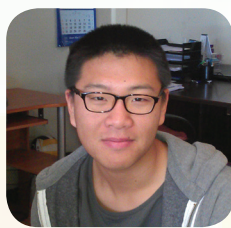
### 김규실 집사

우리 가족이 예배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겸손하며 규모있게 행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족을 통해 이땅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 윤영섭, 혜수 집사

올 해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아이들이 시작할 새로운 삶을 주안에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김신의 청년

Following the Word of God, Worshiping solely with my own heart Family moving their church to ICC.



### 김메이 청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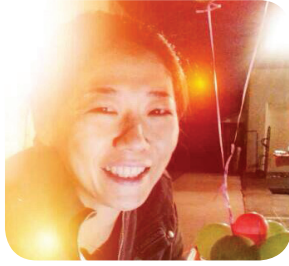
저희 코람대오 청년부 한명 한명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한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2014년이 되길 기도합니다.

... 새해 기도제목 ...



**김준익 장로**

올해 저희가정의 소원은 아들이 결혼 하는 것 입니다.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서동희 집사**

새로운 것들을 담대하게 받아드릴 수 있길, 환경이나 사람에게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새로운 모든 것을 담대하게 대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이광조 집사**

12년째 중풍의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아내에게 친절하고 부드럽고 감사가 넘치는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신생아 시절 세균감염으로 시력에 이상이 있는 셋째 딸 하영이의 눈이 빨리 치유될 수 있기를. 새로 시작한 건강식품 비즈니스가 크게 번성해 십일조의 왕이 될



**김제니퍼 집사**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믿음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안예교회가 이름 그대로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같이 일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동참하기를. 말씀, 기도, 찬양, 사랑, 전도의 불이 붙는 주안예교회 되길.



**김사라 권사**

남편은 복음전도자로 쓰임 받기 원합니다. 전하라 그 이름대로 복음을 전하는 딸, 저는 날마다 말씀의 깊이 넓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세요.



■ 제직훈련을 받고

성숙한 열매 거두는 나무로...



김헬렌 권사

별 기대 없이 의례적으로 하는 세미나로 생각하고 참석하였으나 의외로 저의 세포가 하나 하나 살아나는 듯한 생동감과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신, 2013년이 넘어가기 전 보너스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 시간에 교회론으로 시작하여 교회란 예배당이 아니라 사람의 공동체이며 각자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지만 결국은 하나라고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와 그분의 사역을 함께하는 공동체라고 정리시켜주시는데 마치 자석에 끌리듯이 강론에 젖어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회란 기록해야 하며 구별이 되어 세상과 달라야하고 나 자신은 내려놓아야함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오케스트라의 단원들 처럼 자기의 소리를 죽이면서 지휘자이신 목사님을 따라 서로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소리를 맞추는 신앙의 자세를 갖추면서 체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으로 착하게 살고 싶은 욕망을 부여 주셨습니다.

교회란 보편적이어야 함을 가르쳐주심 속에서 지위, 재력, 학문을 따지지 않고 만민이 모여 있는 공동체라고 느꼈습니다. 하루 하루를 무사히 보냈음에 감사하고 새로운 내일을 맞기 위하여 희망과 꿈을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싶고 서로 열린 마음을 갖고 어울려 사는 방법이 최선이겠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란 사도적이라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위에 세워진 교회 즉 말씀 위에 의거 자정능력이 있는 교회이어야 함을 강조하신데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위에 기초가 세워져 빛과 소금이 되고 복음의 누룩이 되어 주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아름다운 터가 되기를 기도드리게 되었습니다.

둘째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값 주고 샀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노예이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인정 나의 영광을 위해서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정신없이 시간을 채우면서 살아온 것에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Star,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겸손한 Super Star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선한사람은 선한 것을 악한사람은 악한 것을 내는데서 마음관리를 잘 해야 됨을, 즉 마음에서 언어 행동들이 나와 그것이 습관화되면 바로 그 자체가 인격이 되는 것이라 하며 '예수님 인격에 물들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셋째 시간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에 대해서 강론해 주셨는데 그릇자체가 목적과 용도가 다르듯이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그릇들이 있었는데 쓰임 받는 그릇이 됨이 얼마나 축복이고 행운이 인지요!

누가 언제 우리 집안을 들여다 보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잘 정돈된 살림을 하고 싶듯이 내 영혼을 깨끗이 관리해야 됨을 즉 잠언 25:4 "은에서 찌끼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의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라는 데서 찌끼를 제거하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지요.

희망이 있기에 마음 놓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면서요 3시간 교육이 물이 흐르듯 빨리 지나간 것에 아쉬움을 느꼈으며 이 해를 보내기 전에 나 자신에게 혁명공약을 하며 "자수하고 광명 찾자"라는 말처럼 나 자신에게 자수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새 희망이 솟으며 내 영혼에도 파릇파릇 솟아나온 어여쁜 믿음의 새싹들이 꺾이지 않고 무럭무럭 자라나 점점 진하고 성숙한 열매를 거두는 나무로 장식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런 잔치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세 분 목사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말씀의 은혜, 따뜻한 사랑, 넘치는 감사

## ■ 벨리 채플 제 3차 주안에만남

‘주안교회’ 새 성도들에게 담임목사의 목회 원칙과 방향을 설명하는 제 3차 벨리채플 ‘주안의 만남’이 1월 12일 1호실에서 열렸다.

예쁘게 장식된 테이블마다 교회 소개 팸플렛이 놓여 있었고, 새가족국에서 마련한 정성스런 오찬을 시무장로들의 직접 서브를 받으며 시작된 이날 만남은 금방 서먹했던 분위기가 화기에 애하게 이어졌다. 식사중 최혁 담임목사와 가족별 사진 촬영이 진행됐고, 이어 교역자 밴드팀의 찬양과 시무장로, 교역자 소개가 있었다. 특히 장로의 주된 역할은 섬김이기에 ‘장로는 관노’라는 구호를 외치는 다짐이 신선했다.

1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만남에서 최혁 담임목사님은 목회의 최우선이 ‘예배’임을 강조했다. 최 목사는 “주일 예배에 참석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 따라 한 주일을 보내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결코 말씀과 예배 준비를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 위해 모든 목회자들이 혼신의 정성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임재하심을 경험한다는 ‘설레임’을 갖고 예배에 참석하는 자세를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4대 목회원칙으로 ‘예배’ 외에 ‘구제와 선교의 밸런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를 만드는 교회’를 제시했다. “진정한 구제와 선교는 ‘영혼의 가슴앓이’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최 목사는 관심이 없는 물질적 지원만으로 맡은 바 소명을 다 했다는 자세에 경계를 표시했다. 균형잡힌 구제와 선교를



위해 장기적인 계획으로 신학대학 설립과 함께 이 곳을 통한 해외 선교사 자녀들의 교육 및 재파송,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지 문화가 익숙하고 언어 소통에 전혀 어려움이 없는 선교사 자녀들을 주안예교회가 초청해 목회자 양성교육과 훈련을 시킨 후 효율적으로 현지 선교를 담당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신앙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의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성도들에게 있어 2세들의 신앙 실패는 이민 생활의 실패로 단정지을 수 있다”는 최 목사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선 체계적인 교

육 커리큘럼이 필수이며 이를 통해 2세들이 고교 졸업 전에 성령체험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주안의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위해 소그룹에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교회 내 평신도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훈련을 받아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날 ‘주안에만남’에서는 참석자 전원이 각자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주안예교회’에 출석케 된 동기가 ‘성령의 이끄심’, ‘지인의 소개’ 등과 함께 ‘CD나 인터넷을 통해 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CD와 인터넷을 통한 선교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 이재호 기자 |

## 제직훈련/ 교회론 · 봉사자의 자세 새롭게 가다듬다



2014 제직임명을 위한 훈련이 12월 8일 벨리 채플과 15일 다우니채플에서 각각 진행됐다. 주안예교회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서리집사 임명 대상자들의 필수 이수 과정으로 교회론과 제직의 성경적 정의, 제직의 바른 봉사자세 등에 대한 진지한 강의가 이어졌다. 첫 강의에서 최혁 담임목사는 교회란 에클레시아,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온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AD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재확인한 니케아신조에 ‘교회는 하나이며, 거룩하며, 보편적이며, 사도적이어야’ 한다는 의미에 대한 해석이 있었다.

둘째 강의는 박동욱 목사가 올바른 제직 직분의 이해에 대해 초점을 두었다.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교회의 머리이고, 우리는 몸의 각 지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소중한 것이기에 종의 자세로 감당해야 한다.

마지막 강의는 이현욱 목사가 하나님의 쓰실 만한 그릇이라는 주제로 제직의 태도와 마음가짐에 대한 내용이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필요로 할 때 쓰실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되고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해야 한다.

3시간에 걸친 강의를 통해 제직들은 사명을 새롭게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충성스런 종이 되기를 다짐했다.

# Rejoice&

중고등부 스킷



열 받은 천사

성탄축하예배 & 성탄 행사



한어청년부 바디워십



신나는 예배, 분위기 up, up!

연합성가대 찬양



목소리 곱게, 표정도 소녀처럼

찬양팀 특별연주



고운 선율 아기 예수님께

교육부 성탄발표회



오늘은 우리가 주인공이야

장로중창단



오랫만에 무대에, 좀 떨리네



# Blessing!

■ 신년특별집회



주님 만나러 가는 길

말씀으로 은혜 받고 복된 새해를



자녀축복기도

목사님 축복기도 예쁘게 받아야지



신년특별저녁집회

집회마다 감동과 기쁨이 충만



올해 내게 주신 말씀

축복의 말씀 카드 받으세요



신년특새 교구 식사봉사

주안에 국밥집 대박 났어요

Retreat Reflection ...

Always Learning

Identity. This idea has plagued many hearts and minds throughout the six months of ministry of In Christ Community Church. No one has been able to escape it; everyone had some dominating question or terrible misconception of who they were as a person. My conversations with students consisted of their grades, perception, self-image, acceptance from the people they surround themselves with. These were the most prominent topics students shared and these were also the most difficult for the students to escape from. I asked, this retreat, the so-called Identity retreat, would it provide actual revelation for anyone? Will anyone actually receive their identity in Christ?

The paragraph above is a general description of how I walked into retreat. The "deep", philosophical thinking and complexity was to put my mentality on display. I wasn't really thinking about retreat for myself; my mind was only focused on one thing: being a "teacher". In all honesty, I was very fearful, doubtful of myself; all I wanted was to be the very best leader that would radically impact my students' hearts and lives. Sounds like a noble cause to me. The idea of a teacher having the desire to radically impact the lives of his students seems God-like, no? The exterior always seems nice but the interior of this desire was black, it was dirty. Selfishness and pride seduced me and I fell for it, fairly easily to be perfectly honest.

So now, this is where things get interesting. At the retreat, there was some unnecessary drama in the makings and it soon blew out of proportion. When I heard about the situation, my mind shut down; I was helpless and vulnerable, I had no idea what to do. I felt like I had to fix it, so I put the burden, all the pressure on myself, for the moment. Then I asked, why am I thinking like this? Why do I feel like I need to do everything on my own? God humbled me and led me to share the situation with Pastor Isaac. When Pastor Isaac took control, it seemed like things were finally falling into place. The hearts of the students were no longer hard but they were made malleable, God could bend them and fold them as He pleased. But, God didn't stop there, He gave me the opportunity to not be a "teacher" to David, rather, be the older brother that he needed at the time.

The main question is, how did I walk out of retreat? It's funny but I walked out as a student. God revealed to me that although on the outside I have been labeled as a teacher, I will always be His student. I knew that the foundation of my identity was being

a Child of God, however, God expanded on my identity at this retreat. I am His student, and my job is to spread His love to His other students. Not by saying the right words or by constantly worrying about their well-being, but by loving God first. Pastor Isaac said it best, "the best way to love anyone, is to love God."



Joshua Han (ICY Teacher)

● 중고등부 수련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편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 고린도후서 3장 3절

짧은 준비기간을 거쳐 치밀한듯 미흡하게, 미약했으나 창대할 미래를 꿈꾸기에 충분한 아이들의 겨울 수련회가 은혜로운 2013년의 끝자락을 장식했다.

가장 다이내믹한 변화를 겪는 12세부터 18세의 엄청난 간극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설레임으로 준비한 아이들과 스카웃 캠프가듯 준비한 듯한 아이들까지 이 엄청난 스펙트럼을 전도사님을 비롯한 운영진은 서슴없이 감싸 앉았다.

이 모든 것이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걱정만 기대만 시작한 수련회는 이번에도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로 결론지어야 마땅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은혜를 받았고 깨어졌고 행복했다. 흐느낌으로 성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친구들과 처음 경험하는 이 가슴속 불씨가 무엇인지 알아가며 눈물 한방울을 떨구는 아이들까지 참으로 다채로운 반응을 보였다. 설교를 함께 들던 서포터들은 이 심오한 말씀을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했지만 언니 덕에 산을 오른 8살짜리 아이도 "더러운 옷을 벗고 새옷을 입기 전 깨끗이 샤워를 하듯 하나님 앞에 나아가갈 땐 알고 지은 죄는 물론 모르고 지었을 죄까지 회개한 후 새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단칼에 정리해버렸다.

혹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것으로 덧입히고 있진 않은가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우린 이 심플한 메시지가 왜그리 받아들이기 힘들었는지 말이다.

애굽의 노예생활에 길들여져 자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예시절을 그리워하며 불평하던 1세대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만나와 메추리로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인생을 다져간 2세대...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했듯이 천국이 바로 우리아이들의 종착역이자 시작점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산을 내려오며 아이들은 다짐했다. "I'm chosen, I'm child of God." 우리 아이들은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되었다.

이제 주사위는 우리에게 맞겨진듯하다. 주님께서 내게 보내신 이 편지를 어떻게 간직해야 할지...어제와 달라져 산을 내려온 아이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리지 않기를...그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며 조심스럽게 한발 한발 내딛다 보면 내 인생에도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있으리라 확신한다. | 채은영 기자 |

# ICY Winter Retreat ●



## ... Retreat Reflection

### Interesting in Eternity

Going to the camp I didn't expect much, but I was very excited about spending time with the youth group. Because I was in the praise team, the start of the camp consisted of unloaded tons of equipment into the worship room. After everything settled, the camp went pretty smooth from there. Honestly speaking, it wasn't the most "life changing" camp I have ever been to, but, personally, I got two main things out of this winter camp.

First, I had a great time getting to know the youth group. This was my last winter retreat as a high school student and I really wanted to show the underclassmen the responsibilities of a senior. I would help with carrying luggage and wake up snoring kids for early morning quiet time. I am grateful that opportunity.

Second, I discovered my current identity and got a grasp of what my identity should be. I learned that although there are many worldly pleasures that can make me rich and famous the true treasure lies in heaven. I mean HE dies for us so we can live for him. Right?

Overall, the retreat was a blessing. I want to thank the pastors, teachers, and parents for their efforts and prayers towards this camp. All glory to God and His Kingdom!



**Robin Lee**  
(12th Grade)

### Listening to God's Voice

I thought retreat was great. I felt God's presence in the worship. My heart was a peace because I went to God and asked Him for forgiveness. I also realized there that I am a child of God and my identity is in God. Nobody can label me anymore because I know now that I am God's child. The sermons were great, but I wished I focused more. But my teacher, Hyuk helped me learn more about my identity and we also got closer together. All the students and teachers there got to bond. I met people there that I have never seen before in my life. I really thought that it would be awkward that we were going to retreat with the Valley Chapel. But I got to know a lot of them. I am very thankful that we went with Valley Chapel because if they didn't come then I wouldn't have gotten closer with them.

I really loved the outdoor activities we did. It was the first time I went on zip lining. I didn't want to go at first, but my friends told me that it was going to be okay. Then Pastor Kevin told me if I don't get over my fear of heights now, then when will I? That really surprised me because it was so true. So I went on and I realized that I actually liked it. At retreat I also loved the praise team. They must have been so tired. They played every day and night. I'm very glad we have committed praise leaders that are willing to give us an awesome experience at retreat.

Everything at retreat was good overall, but I wish we had more time to sleep. My friends and I were dead tired. I also hope that there will be a retreat with 4 days, but I understand that the church is just starting so we don't have to do it. It would be a lot more fun if we did more games at retreat. I think it would be a great idea to make the prayer session longer, because I didn't even get to finish my prayers, I had to finish them in the cabin. I also hope that there will be a campfire next winter, the stars at retreat were amazing.

I think the youth group leaders and pastors did a really great job. Especially since it was our first retreat. I hope more people will come next time. I'm thankful that I went on ICY's first retreat. I'm going to keep praying that our next retreat will be as good as this one, maybe even better.



**Issac Han**  
(8th Grade)



# Golden Bell Bible Quiz!



## 경쟁보다는 우정과 배려 흐뭇

지난 12월 5일, 6일 Downey Chapel과 Valley Chapel에서 골든벨 퀴즈가 열렸다.

Downey에서는 David Seo (8th), Kate (7th), Justin Park 그리고 Valley에서는 Caleb Yun, Eric Lee, Chelsea Lee가 1,2,3등을 차지했다. 아이들을 들뜨게 만들었던 이 행사는 생각보다 무척 조용히 치뤄졌다. 우리 교회에 속한 각 가정의 금지옥엽 귀한 자제들인 교육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몇 주 전부터 열심히 공부한 성경지식을 겨루는 잔치였던 골든벨은 기대와 달리 아주 조용한 그들만의 잔치로 끝났다. 이 귀하고 즐거운 그러나 조용히 지나간 교육부 행사를 보면서 우리의 기대주인 아이들에게 교회 전체의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다.

그러나 아이들은 이런 다소 미흡한 상황 속에서도 누려야 할 것들을 충분히 누리는데 했다. 어찌 어찌하다 참가신청을 하지 못했던 아이들은 뒤늦게 참가하게 해달라고 하고 그 친구를 위해 같이 받을 동동 구르는 모습은 참 예뻐다. 어찌 보면 내 경쟁자가 늘어나는 일이고, 미리 준비하고 계획했

던 나의 수고와 달리 그냥 끼어드는 그 친구가 못마땅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이들은 이 순간을 친구와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 같았다.

다른 한편에서 행사를 전두지휘한 이케이시, 노호림, 성이삭 전도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런 끼를 숨겨 놓으셨는지... 황금색 넥타이를 매고 서로 맨트를 맞추던 이케이시, 성이삭 전도사들의 호흡은 골든벨이 아니라 골든글로브 메인 MC여도 괜찮았지 싶을 만큼 찰떡궁합을 이루었다. 전도사들이 같고 뒤얽을 멋드러진 진행으로 명석을 깔아주자 기다렸다는 듯이 한껏 분위기에 빠져 들어갔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간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준비한 골든벨 퀴즈는 이에 보답하듯 학교공부시간을 쪼개 열심히 성경공부한 아이들을 만나 흥겹게 치뤄졌다.

조금만 눈을 돌리면 자극적인 놀거리가 가득한 시대를 역주행하는 시간이었다. 마주 앉은 친구와도 SNS로 대화하는 요즘 우리 아이들은 이 행사를 준비하며 서로 예상문제를 내주며 눈빛을 교환하고 하이파이브로

격려하며 정답을 맞추면 어깨를 토닥이며 서로의 체온을 나눴다.

초등부부터 고등부까지 폭넓은 연령대가 한꺼번에 참가하는 것이 불공평하지 않을까 생각하던 순간 8살 아이가 16 언니 오빠 앞에서 기죽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아이들보다 많이 부족할 수 있다는걸 깨닫기도 했다.

나를 앞지르거나 않을까, 나보다 잘하면 안되는데 하는 경계심에 서로 끌어내리려는 세상과 다르게 우리 아이들을 서로를 격려했다. 기회를 놓친 친구들에게 한번 더 기회를 주자고 전도사님께 애교 섞인 때를 써 다시 자리를 만들어 주는 모습은 아마 이곳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다. 심지어 다우니체플에서는 일등을 해서 받은 상품을 그 물건이 필요한 친구에게 양보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서는 많은 교육부 행사가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랑과 관심과 후원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보다 훨씬 혼탁한 세상 살아낼 아이들을 응원해야 마땅할 것이다. | 채은영 기자 |

### “주안에” 2014년 2월호 원고 모집

‘주안에’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우리교회 뉴스레터입니다.

교구, 구역,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

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문서국 이메일: icccnews123@gmail.com



## ■ 사역국 소개 / 세리토스 채플 예배국

### 예배 집중을 위해 최선의 준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이다.

그 일을 위해 우리 주안예교회는 교회의 중심을 이루는 두 축이 있는데 사역국과 교구, 구역으로 이루어진 교회조직이다.

주안에 소식지는 2014년 사역국소개 코너를 마련하여 사역국을 차례로 소개하여 성도들이 사역국을 이해하고 봉사에 참여하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그 첫 순서로 세리토스 채플 예배국을 소개한다.

주안예교회가 지향하는 가장 중요하고 첫째 되는 비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에 집중하는 교회’이다. 예배가 교회의 가장 큰 존재 목적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최혁 목사는 “성도는 예배에 성공해야 한다.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을 실패한 것이고 예배가 살면 영혼이 살고 영혼이 살면 가정이 회복된다. 예배에 성공한 성도가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예배사역의 중심에 예배국이 있다.

세리토스 채플은 주일예배, 다우니 채플은 목요영성집회, 비전 채플은 새벽기도회로 각각 모이고 있으며 예배국원은 주일과 목요일 예배 전에 좌석배치 및 예배환경 조성, 좌석 안내와 예배 중 조용한 환경 유지 등 예배 전반에 대하여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다.

세리토스 채플 예배국을 섬기고 있는 유인숙 전도사는 “성도님들이 예배시간에 여유 있게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에 임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예배국을 섬기며 1, 2부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준비된 예배를 통하여 배의 은혜를 받는다. 그리고 성도님들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되어 좋다”고 했다.

이런회 집사는 “성도님들의 은혜 받는 모습에서 은혜를 받는다. 그리고 성도님들과 반가워하고 인사하며 은혜 받고 기억해 주시는 모습에서 감사와 기쁨이 있고 더욱 행동이 조심스러워지고 보람을 느낀다”고 행복해 했다.

예배국장으로 섬기고 있는 신희철 장로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셋업팀, 주차봉사팀, 찬양팀, 미디어팀, 예배국원 모두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두가 협력하여 예배를 섬기는 것이다. 예배 분위기가 집중되면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예배가 예배답게 드러지도록 성도님들이 협력해 주시고 예배안내에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비록 우리 세리토스 채플의 예배환경이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은 있지만 주어진 환경에서 최고, 최선의 예배를 드리려는 예배국원들과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 매주일 매시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김경일 기자 |

##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낫다”

“두 Chapel에서 참여했던 탓에, 또 6학년 학생과 12학년 학생들 47명이 함께 한 탓에, 그리고 준비기간도 짧았다. 처음 결행한 행사인지라 세부적으로 부족했다는 많은 의견들 잘 들었다. 이 지적들도 다 우리의 지적 자산이다.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기획 준비기간이 부족하다고 후순위로 미루지 않았기에 해냈다. 다음 수련회 때는 좀 더 조직된 기획에 섬세한 교육내용으로 학생들에게 소중한 성령 체험의 기회를 줄 수 있게 되었다!” 평가회에서 국장 나형철 장로의 마무리 말씀은 우리 교육국 모두에게 새 희망을 주었다.

이번 학생수련회의 주제는 “정체성 Identity”이었다. 개인별 체험발표들을 들어보면 학생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개인의 이익이나 욕심, 명예만을 위해 사는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임을 잘 인지하고 있었다.

수련회기간 내내 디렉터를 포함한 세 분의 교역자들에게서 실력과 열정을 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영성은 최혁 목사도 인정할 정도로 탁월하며, 그들의 겸손과 성품은 나이보다 훨씬 더 성숙함을 볼 수 있었다. 부모님으로 구성된 총무단은 한국 아줌마 외에는 감당하지 못할 극성을 여전히 보



여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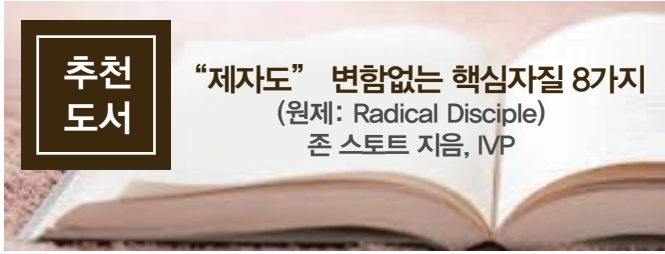
수련회 일정중의 한 에피소드이다. 수련회 둘째 날 저녁의 설교는 회개와 성령체험하기에 적절한 시기로 잡았다. 그러나 아쉽게도 생각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1:30PM-4:30PM까지 암벽오르기, 공중 줄이동 등등 야외에서의 활동시간이 있었다. 학생들은 엄청 재미있는 시간을 갖었다. 격렬한 야외활동에 체력은 한계에 달했고, 저녁식사 후의 나른함, 1시간 동안의 발표에 집중력을 소모한 학생들에게 아무리 훌륭한 말씀이라도 이미 설교가 되었다. 학생들은 졸린 눈을 부릅뜨며 졸음과 싸우고 있었다. 모든 방안을 동원하여 집중을 유도하는 설교자의 모습 자체가 안스러울 정도였다. 결국은 주의집중이 안 되는 학생들을 배려하여 의도적으로 짜여진 통성기도를 유도하지 않은 설교자의 사려 깊은

결정이 있었다. 이 상황을 파악한 디렉터는 학생들을 숙소로 보내고 부장, 총무단에게 이 과정에 대해 짧게 이해를 구했다.

디렉터는 설교자의 인위적인 유도는 오히려 성령님의 인도함을 막는 결과를 우려했고, 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학생들에게 은총을 내려 줄 것을 믿었다. 이 믿음대로 회개를 통한 성령체험의 순간은 마지막 날 아침 개인별 체험 발표후에 학생들의 통성기도로 시작했다.

마지막 체험 발표로 한 학생이 다음과 같은 간증을 했다. “저는 이민 생활에 정착하기 위해 애쓰는 부모님을 보며,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힘들었습니다. 제 진로와 학업 문제만으로도 저 자신은 이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문제가 아닌,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내용의 간증이었다. 그러나 “남을 위해 기도했다”는 고백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한 방안이기도 하지만, 찾은 열매이기도 했다. 자신을 돌아보기도 급급한데 자신을 뛰어 넘어서 타인을 위해 처음으로 기도했다는 고백은 이미 주재 내용의 이해를 넘어선 성령님의 역사일 수밖에 없다고 나는 믿는다.

| 김경배 집사(벨리채플 교육부 부장) |



50여권의 책을 통하여 독자들을 만나며 크고 작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존 스토틀 목사가 88세의 나이에 마지막으로 서술한 책이다. 그동안 자신의 책을 통하여 함께하였던 모든 독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이 책에 기록되어있다. 참고로 존 스토틀 목사는 2011년 7월에 90세의 나이로 소천하셨다.



박동욱 목사

약 30년 가량을 제자훈련을 하며 지나온 나에게 존 스토틀 목사의 마지막 책이 '제자도'라는 것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과연 이 책은 이 책을 통하여 무엇을 남기려고 하시는가 하며 책을 접하였다. 이 책 '제자도' (원제목: Radical Disciple, 급진적 제자도)를 통하여 존 스토틀 목사는 철저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제자가 갖추어야 할 8가지 자질을 통하여 전하고 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에게는 복종할 영역을 취사선택할 권리가 없다”며 강한 어조로 머리말에서 언급한 존 스토틀 목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장 먼저 ‘불순응’이라는 특성을 가져야 함을 전한다. 거룩함을 지키려고 세상을 도피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세상에 순응하여 내가 지녀야 할 거룩함을 희생하는 것이 아닌 철저하게 세상에 맞서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인생의 목적을 무엇으로 삼아야 하는가? 제자는 자신의 순례 여정의 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할 인생의 목적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임을 서술하였다. 사역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이전에 먼저 성품의 측면을 언급한 제자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분의 섬김과 사랑, 오래참음과 또한 예수님의 선교를 닮아가는 것이 제자의 중요한 특성인 것이다.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추구하는 현재의 추세에 깊이있는 성장을 경고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을 강조하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빈약할수록 우리 제자도는 빈약할 것이고, 반면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풍성할수록 우리 제자도도 풍성할 것이다’고 언급하였다.

그외에도 창조세계를 돌봄, 단순한 삶, 균형, 의존 그리고 죽음을 철저하게 살고자하는 급진적 제자들이 가져야 할 특성으로 열거하며 잘 설명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더 나아가 온전히 헌신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제자도’ 책을 권하고 싶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하여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고 있는 존 스토틀 목사의 유언과도 같은 이 진중한 내용을 우리의 삶에 공유하고 적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



■ 문학과 삶

“ 가난한 새의 기도 ”

이해인

꼭 필요한 만큼만 먹고  
필요한 만큼만 동지를 틀며  
욕심을 부리지 않는 새처럼  
당신의 하늘을 날게 해 주십시오

가진것 없어도  
맑고 밝은 웃음으로  
기쁨의 깃을 치며  
오늘을 살게 해 주십시오

예측할수 없는 위험을 무릅쓰고  
먼길을 떠나는 철새의 당당함으로  
텅빈 하늘을 나는  
고독과 자유를 맛보게 해 주십시오

오직 사랑하나로  
눈물속에도 기쁨이 넘쳐날

서원의 삶에  
햇살로 넘쳐오는 축복

나의 선택은  
가난을 위한 가난이 아니라  
사랑을 위한 가난이기에  
모든것 버리고도  
넉넉할수 있음이니

내 삶의 하늘에 떠다니는  
흰구름의 평화여

날마다 새가되어  
새로이 떠나려는 내게  
더이상  
무게가 주는 슬픔은 없으려니...

투명한 유리잔에 안개꽃을 띄어놓고 그애잔함에 취하듯이 내가 이해인 수녀의 시를 마음에 담아 천천히 마시고픈 이유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는 진솔한 사랑과 기도의 노래여서일까?

하나님이란 그 크신 분의 품에 안기운 평화처럼 우리 주위에 널려있는 작은 풀꽃과 돌맹이 하나까지도 따뜻한 기도로 감싸안으며 오늘은 그 소박한 사랑이 어느새 가난한 새로 날아 앉는다. 가지고 갈 것 하나 없는 걸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도 없는채로 날아오르는 기쁨의 깃털!

부럽다, 이쁜 새야! 나도 너처럼 가볍고 싶는데 왜이리도 무거운 슬픔이구나...새해를 시작한지 얼마라고 내 삶의 하늘에는 흰구름의 평화대신 무게 무게 피어나는 갈등과 소요가 구름을 피운다.

그때, 문득 잿빛 구름을 헤치고 주님 말씀하시네, “Come to me,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I will give you rest.”

주님 아셨어요? 주님 아시지요? 찬란하게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 전부였던 철부지 인생길엔 먼길을 떠나는 철새의 당당함도, 갈매기의 꿈도 없었던걸, 오직 포장된 욕심이 때처럼 무거워서 당신의 그 큰 하늘을 날지 못했던걸...

이제는 이 기름때 묻은 내 깃털을 당신의 옷자락으로 씻어주세요.

그리하시면, 저 작고 가난한 새처럼 가진것 없어도 맑고 밝은 웃음으로 기쁨의 깃을 치며 오늘 당신의 하늘을 날아 오르겠어요.

가볍게 가볍게 저 큰 하늘을 훨훨 날아오르며 그 광활한 고독과 자유를 가슴이 터지도록 마시겠어요.



서미숙 기자

■ 교역자 소개/ 노호림전도사

## 선한 종교인에서 은혜의 삶으로

주안예교회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지면으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세리토스 채플의 중고등부(ICY)예배를 섬기고 있는 노호림(Kevin)전도사입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저는 많은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의 축복과 사랑 가운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군인이셨던 아버지의 미국발령으로 중학교 2학년 때 미국에 오게 되었고, 가족과 함께 캔사스에서 보낸 중, 고등학교 시절은 정서적으로 제게 큰 행복을 주었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선한 종교인의 모습으로 평범한 삶을 살던 저는 19살이 되던 해에 성령님의 존재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눈과 귀가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캠퍼스 예배 후 어느 날, 모두가 나간 후에도 이상하게 발길이 옮겨지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큰 예배당에 홀로 남아 앉아 있는데 갑자기 따뜻한 온기가 위에서 내려와 저를 감싸고는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당황하는 순간 저의 마음 가운데에 큰 음성이 울렸습니다. “나다...” 너무 놀라서 꿈쩍도 못한 저에게 주님께서서는 한 편의 영상을 빠르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순간까지 늘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폭포수 같은 눈물이 쏟아졌고 그 동안 늘 중심적인 종교생활을 한 것에 대해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살



아게시고 얼마나 나와 동행하고 싶어하시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의 큰 문을 열고 나서는 저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예상치 못한 한 순간에 일어난 일이 지금의 저를 만드는 시작이 되었고 이 후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각 나라에서 모여든 많은 신앙인들과 함께 교회생활을 하며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으나 조금 더 체계적인 말씀 공부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에 있는 무디신학교로 편입을 했고 낮과 밤을 잊어가며 신학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단순하고 딱딱한 논리일 뿐일 거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저에게 신학공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2000년 동안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탐과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신학을 대할 때 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더 깊어졌습니다.

학업 중간에는 한국에 잠시 돌아가 군인으

로서 나라에 봉사하며 한국의 젊은 청년들과 신앙생활을 함께 하였습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미국에서 자라나 미국문화가 더 익숙했던 저에게 한국에서의 군생활은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군생활을 통해 미국과 한국의 문화를 온전히 접할 수 있었고 나중에 이 경험은 미국 문화에 있는 자녀들과 한국 문화에 있는 부모들을 연결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디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이곳 캘리포니아에 있는 탈봇 신학대학원에 진학했고 학업과 Youth 사역을 병행하던 중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모와 한국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최근까지 약 3년간은 한국과 주변 나라(싱가폴, 말레이시아, 인도)를 다니며 외국인 사역, 통역사역, 기독교학교사역 등을 배웠습니다. 어느 곳에 있던 하나님께서 여러 경험들로 주님의 사역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또한 복학과 새로운 사역지(주안예교회)를 예비해 주셔서 미국에 돌아오는 발걸음을 기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배울 것이 많은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묶여 있기에 늘 주님을 기뻐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Youth 아이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이 땅에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기도로 함께 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마음의 눈으로 봅니다”

(고원웅 집사 인터뷰, 1면서 계속)

#### -두 분 앞으로의 비전과 꿈은?

(고지연 집사) 17년전쯤 신혼 때, 둘이서 이야기 나눈 적이 있어요. 우리 다음에 은퇴하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 상담해 주고, 도와주는 일 하자고. 그러나 그 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남편이 완전히 못 보게 되고...

그런데 지난해 초에 저희들에게 힘 돼 주셨던 목사님이 동부에서 초대해 주셨어요. 찬양과 간증 집회 후 그 목사님이 저희 더러 ‘신학이나 상담 공부를 해 보는 게 어떨겠냐’고. 저희는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수일 후 케냐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는 남편의 매형과 누나가 전화가 왔어요. 집회 잘 다녀왔냐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또 그러시는 거예요. ‘신학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고’ 저희들은 똑같이 대답했어요. 아니라고. 그런데 이번에는

성경공부에 나갔는데 지도하시는 분이 저보고 상담공부를 하라고 권했어요. 1주일새 전혀 딴 곳에서, 서로 모르는 분이 똑 같은 권유하시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그리고 17년전 기도가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먼저 상담학 등록을 했어요.

#### -주안예교회 시작과 함께 나오시게 되었는데?

최혁 담임목사님의 CD설교를 3년정도 들었어요. 자동차 안에서 말씀 들을 때는 우리부부의 부흥회였습니다. 뜨거운 은혜가 넘쳤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빨리로, 우리 집 가까운 교회로 오신다는 소식에 빨리 오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죠.

#### -주안예교회에서 찬양사역하고 예배 드리면서 느끼시는 점이 남 다를 것 같은데요?

예배에 대한 기대와 기쁨, 감동이 넘쳐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예배를 경험하

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을 통해 받는 하나님 말씀의 감동,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강단 앞에 둘러선 성도들의 고조되는 찬양, 그리고 결단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봅니다. 예배드릴 수 있어, 찬양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 #2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가 413장(통470) When peace, like a river, attendeth my way

이 곡의 작사자는 호레시오 게이츠 스페포드 (Horatio Gates Spafford, 1828~1888)입니다. 그는 19세기의 ‘웁’으로 불릴 정도로 가족의 비참한 죽음 때문에 크나 큰 슬픔을 겪은 사람입니다. 뉴욕에서 태어나 주일학교 교사로, 복음 전도자로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았으며 법의학 교수, 변호사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던 그는 1870년 첫 번째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아들이 어린 나이에 병으로 사망한 것 입니다. 그가 43세 되던 그 다음 해에는 전 재산을 투자하여 시카고에 지은 호화 별장이 당시 대화재로 인해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전 재산을 모두 날리고 크게 상심하여 지내던 그는 1873년 가족들을 위로하고자 부인과 네 딸과 함께 유럽여행을 계획하였으나 그가 섬기던 다 타버린 무디교회의 잔무때문에 가족만 먼저 떠나 보내게 되었습니다. 11월 15일, 예정대로 부인과 네 딸은 프랑스 여객선 “Ville de Havre”호를 타고 뉴욕항을 출발 하였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여객선은 일주일 후인 22일 새벽 영국의 여객선 “로션 Lochearn” 호

와 정면 충돌하여 30분 만에 대서양에 가라앉게 되어 네 딸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천만 다행히 아내 안나는 구조되어

“혼자만 살아 남았음 Saved alone” 이란 전보를 남편 스페포드에게 보냈고 이 비통한 소식을 접한 그는 망연자실한 가운데에서도 구조된 아내를 만나러 모든 것을 제쳐두고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배를 타고 가던 중, 선장이 당시 사고해역 바로 위를 지나고 있다고 말 해 주었을 때 그는 네 딸의 이름을 차례차례 부르며 밤새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절규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곤 동이 틀 무렵 선실로 돌아와 두 손을 꼭 쥐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다 시편 23편을 읽는 중에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씀에 이르는 순간 갑자기 내면에서 요동치던 폭풍이 한 순간에 잔잔해 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바로 그 때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깊은 평안이 그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네 딸을 잃은 비극의 스페포드의 입술

에서는 “내 영혼이 편하다(It is well with my soul)” 라는 고백이 맴도는 가운데 한 구절 한 구절 시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 하였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아니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합니다 주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작곡가는 앞서 소개한 필립 폴 블리스 (Philip P. Bliss 1838~1876)입니다. 블리스 또한 순탄치 못한 생을 살았습니다. 1838년 7월 9일 펜실베이니아 주의 오두막집에서 태어난 그는 워낙 가난한 집안이라 학교에 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랄 때 독실한 크리스천인 아버지의 성경적 가르침으로 타고난 시적 재능과 음악적 재능을 살려 독학으로 음악공부를 한 다음 부흥감사 휘들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블리스는 틀과 함께 미 전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파했고 또한 자신이 직접 작사 작곡한 찬송으로 집회를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찬송가 중에 그가 남긴 곡이 여럿 되는데 우리에게 친숙한 찬송가 298장(통35) “속죄하신 구세주를” 작사 하였고, 찬송가 311장(통185) “내 너를 위하여는”과 지금까지 소개한 “내 평생에 가는 길”은 작곡으로 작품을 남겼습니다.  
| 서세건 기자 |

### 성경이 말하는 10가지 지혜로운 대화 방법

1. 들을 준비를 하고, 상대방이 말을 끝내기 전에 대답하지 않는다. (잠 18:13, 약 1:19)
2. 말하기를 더디 하고, 먼저 생각하며 서둘러 말하지 않는다. (잠 15:23, 28, 21:23, 29:20)
3.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한다. (약 1:19)
4. 진실을 말하되 언제나 사랑 안에서 말한다.

5. 사실을 부풀려 말하지 않는다. (엡 4:15, 25, 골 3:9)
6. 화를 내면서 대꾸하지 않는다. 부드럽고 친절하게...(잠 14:29, 15:1, 25:15, 29:11)
7. 잘못을 했으면 인정하고 용서를 빈다. 상대가 잘못을 고백하면 용서한다고 말한다. 그런

- 후에는 그것을 깨끗이 잊고 다시는 언급하지 않는다. (약 5:16, 잠 17:9, 엡 4:32, 골 3:13)
8.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 (잠 10:19, 17:9)
9. 상대를 책망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 오히려 회복시켜주고 격려한다. (롬 14:13, 갈 6:1, 살전 5:11)
10. 공격하거나 비판하거나 책망하면 똑같이 대꾸하지 않는다. (로마서 12:17, 21, 벧전 2:23, 3:9)

## 예배시간 및 교회 위치 안내

주일 예배

세리토스채플 / 오전 8:00, 10:00  
밸리채플 / 오전 10:00, 11:45

영성 집회

목요영성집회 / 저녁 7:45 다운니채플  
금요영성집회 / 저녁 7:45 밸리채플

새벽 예배

밸리채플 / 새벽 5:30(월-금), 6:00(토)  
다운니채플 / 새벽 5:30 비전채플



밸리채플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다운니채플 10629 N. Lakewood Blvd., Downey CA 90241  
비전채플 8531 E. Florence Ave. Suite #100, Downey, CA 90241  
세리토스채플 11751 Alondra Blvd., Norwalk, CA 90650